



십자가 속에는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영흥교회로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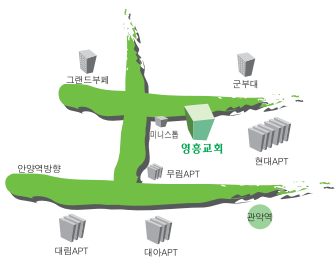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흥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성령
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당신도 영흥교회에서 응답받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
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것 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영흥교회에서 축복
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 영흥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 영흥교회는 1981년 6월 28일에 김형석 목사님에 의해 설립되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경성노회의 중경시찰에 소속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 영흥교회는 1.하나님 중심, 2.말씀중심, 3.교회중심의 칼빈주의적 장로교의 복음적 신앙을 지킵니다.

영흥교회 위치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7-5
대표전화 : 471-7822, 8922 / FAX, 472-3967
홈페이지 : www.youngch.or.kr

영흥교회 예배시간

새벽기도	1부	5:00	시온성전
	2부	6:00	본당
주일 낮	1부	7:30	본당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2:30	본당
삼일밤	오후	7:00	본당
금요심야	오후	9:00	본당
유치부	주일	11:00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11:00	시온성전
초등부	주일	11:00	초등부실
중고등부	주일	9:00	중고등부실
청년부	주일	9:00	청년부실

영흥교회가 전하는 행복이야기

살구나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성막금 촛대 등잔이 살구꽃 형상, 새 생명과 깨어남의 뜻



"정탄축하에매중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두 손 더머로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마치 천사들의 합창이라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김은수/정다혜 어린이

생명의 말씀 『일곱번까지』 2p
신임 교역자 인사 『임찬병 목사, 국선영 전도사』 4p
쑤니의 스케치북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6p
신임 시무집사 / 권사 인터뷰 『충성하며, 순종하며...』 8p
땅끝까지 『쿠르드족』 10p
마르다의 밥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3p
나의 QT 『QT로 열리는 삶』 진효채 권사 16p
새벽송 『기쁜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의 찬양』 18p
믿음생활aq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2)』 20p
목회 칼럼 『기다림』 22p
교회소식/캐페인 (함께 지키는 에티켓) 23p

2013년 2월호



일곱번까지

본문 말씀 | 여호수아 6:12-21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일점 일획 그릇됨이 없는 순종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여호수아 6:12-21

12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와 곳간에 들일지니라 20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을 통해 본 인생을 법칙

우리는 2013년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3년의 항해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현장에도 인생의 풍랑과 험산준령 같은 시련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시킨 사건에서 인생의 법칙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읍이라고 해도, 그 땅은 전쟁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수6:2-3].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전쟁은 하지 말고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행동 명령에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강간죄의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도 만사불통이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므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형편을 보면 그는 억울하게 팔려 가고 온갖 죄를 뒤집어 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만사불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험산준령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가져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서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곱 번까지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을 7일 동안 매일 같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7일간 순종하라는 명령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순종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 선지자도 3년6개월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도로 응답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왕상 18:43) 엘리아는 비를 내려 달라고 일곱 번을 기도했을 때에 가뭄었던 그 땅에 축복의 장대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일곱 번까지 순종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를 찾아왔던 나아만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었을 때 몸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한번, 두번, 세번... 그렇게 여섯 번을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니라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을 들어갔을 때 어린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아만은 억지로라도 7번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7번은,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하셨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온전한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7번을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7번이라도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순종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순종해 놓고 하나님의 주신 복에 겨워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에 도취되고 승리에 도취되어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결국은 모든 순종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여리고 성의 아간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하는 이상한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하는 온전한 순종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순종을 하여도 말씀에 올바른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참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13년,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일곱 번이라도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점 일획도 그릇됨이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임 교역자 인사

영흥교회 교육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임찬병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많은 부담도 있지만, 나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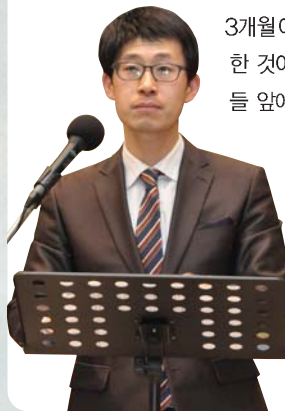
5살 때 안양에 이사와서 석수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면서 안양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양 지역의 복음화를 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흥교회를 와서 시작하는 사역은 청년부, 부부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역하려 합니다. 사역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짧은 시간이어서 성도님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 했는데,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

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은 목사로서 부족 한 것이 많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영흥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를 사역자로 목사로 불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찬병 목사



국선영 전도사

글 | 임찬병 목사 취재 | 박중건 집사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아... 주님, 그래서 저를 여기에 부르셨군요...’

내 일생 첫 새벽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앉아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실 처음부터 새벽기도를 준비 했던 건 아니다. 원로 목사님의 힘 있는 말씀에서 느낀 막연한 호기심과 깨끗한 그 평정심만을 따라감시기운에 밤새 청얼대던 아이를 남편에게 맡긴 채, 그저 그 새벽 무모한 처음을 시작했던 터였다.

아침잠 많은 내가 겨울아침 따뜻한 이불 속을 차고 나온 것부터 특별한 기적일진데, 예배당에 앉아 내뿜은 말들에 나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방언기도들과 어둠 속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들이 어쩐지 눈물겹고 특별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려야 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하루를 더 특별한 곳에 길게 사용하라 예비하심을 잃고 있는 중이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다니던 유치원, 그저 친구 따라 놀러 간 성경학교, 매일 놀던 놀이터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는 어떤 두려움이나 특별한 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게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쉽게 실행이 되지는 않는 법! 자라고 어른이 되면서 반반씩 다리를 걸치고 나의 신앙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그 당연한 것에 대해 자민했다.

신이 있다면 내가 세상일에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배 같은 거 없어도 나를 지켜 주시라고 간절한 신앙 따위 필요 없다고 오만했다. 나 혼자 일 땀세상의 기준에 맞춰 혼자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는 일이 전부였으니 쓰러져도 나 혼자 다시 시작하면 그뿐이라 믿었지만, 내게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나의 가정이 생기고 나서 난 내 뜻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초신자인 내게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



많은 것들과 마주쳤다.

내게 주어진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의 책임이 내가 세상하고만 맞설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두려워 졌다. 그제서야 난 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생각났고 순종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씩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지만 당장 어떤 은혜나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나온 건 아니었다. 느리게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 맑고 차가운 새벽기도에서 나는 결국엔 나를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묘한 힘을 알았고, 간절하게 갈구하는 마음을 배웠다. 진정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아직 초신자인 내게 주님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법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며 중국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영광 올리는 일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만났다. 그 이후 꿈꿈히 매일을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난 매 순간 중얼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솔직한 내 언어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당연히 주실 응답의 뜻을 조용히 생각해본다. 그리고 앞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이 더 깊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성하며 순종하며...

“영혼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소원하며”

2012년 12월 15일 목사님 위임식과 더불어 모두 16분의 시무집사, 권사 임직식,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었다. 모태에서부터 혹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시기에 따라 주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중직에 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감회가 있을까? 오직 주를 위해 수고하며 성도들의 존경을 받던 집사님들 중 이번에 새로이 시무집사와 권사로 취임하신 몇 분을 만나 임직하시면서 받은 특별한 은혜나 각오 등을 취재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들렀다가, 청소를 하고 계시는 김대중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각오? 각오 뭐 있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충성하고 봉사하고……’ 평소와 다를 없는 그분의 미소가 정겹다. 그렇다. 토요일 오전이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성전 청소 봉사를 꾸준히 해오시는걸 보니,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다.

양영자 권사님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신다. “임직자 후보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너를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대답했는데 지나고 나니 이번 일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 뜻대로 쓰이길 원할 뿐입니다”

“세심히 인도하시는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자리”

정미덕 권사님은 임직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히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며 감사를 올렸다. “임직자 투표 과정 중 시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임직식 보름 전에 소천하셨는데, 평소 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님이신지라 장례 절차 하나 하나까지 자녀들을 배려하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형남께서 차비나 하라며 넣어주신 돈이 임직식을 앞두고 이런 저런 경비로 꼭 필요했던 액수 만큼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주신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임직식 때 입으려고 한복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소 실수로 지고리가 찢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배상 받은 돈으로 10년 된 옷 대신 새 옷을 준비해서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남편의 오랜 핍박으로 눈물없이 기도한 적이 없을 만큼 힘든 신앙생활을 해오신 박향숙 권사님, 이번 임직을 앞두고도 역시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고 하셨다. “남편의 외조 없이 감당하기 힘든 직분이라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믿음도 조금씩 성숙하게 해주셔서 주일날 일찍 나가서 수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더욱이 남편이 이번에 서리집사 임명을 받아 부부가 함께 직분을 받고 쓰임 받게 되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10년 전 섬기던 교회에서 이미 중직에 해당하는 직분을 받으셨던 권사님은 어찌 보면 10년 늦은 임직일 수 있었다. 20년 넘게 부은 장기적금을 탄 것 같은 기쁨이라고 하셨지만 처음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등골에서 식은 땀이 날 정도였다는 권사님, 그 만큼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자리임에 그러했을 것이다. 미처 인터뷰를 신지 못한 모든 분들 또한 그러했으리라. 순수함, 사모함을 잃어 버린지도 모른 채 살지 않기를, 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시리라.

“영혼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소원하며”

끝으로 박홍천 집사님의기도를 함께 나누며 늘 중직들을 기도로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아버지, 귀중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동역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직분 잘 감당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디모데처럼 믿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취재 | 이혜진 집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쿠르드민족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힘써야 합니다. 직접 선교지로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자로, 중보자로 모든 민족이 주님께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에는 약 24,00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중에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민족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조상인 쿠르드족”

첫 번째로 나라 없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흩어져 살아가는 약 3,500만 명의 세계 최대 소수민족인 쿠르드 민족을 소개합니다. 인구 절반이 터키의 남동부 산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여 예배를 회복시킨 메대 족속의 고레스 왕,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예비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 이들이 쿠르드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져 게릴라 투쟁 계속되는 무슬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메대인들도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였고, 이로부터 시작된 강력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이 왕성해지면서, 쿠르드 민족은 80여



년간 지속된 아랍민족 간의 긴 무력 전쟁 끝에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그 후 1,300년 동안 그들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켰던 쿠르드 민족이 이제는 대부분 예수님이 아닌 알라 신을 따르는 무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쿠르드 민족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쿠르드족이 살던 지역

이 주변 네 국가로 나뉘어 지게 되었습니다. 중동 최대의 수자원과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축복이기보다는 지주인 듯 지하자원을 노린 주변 국가들로 인해 쿠르드의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듯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쿠르드의 속담이 이들의 배신과 상처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 형제 국가도, 서방의 국가들도 독립이라는 달콤한 말로 속여 이들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할 뿐 이슬람 형제 공동체 안에서도 외면당하고 오히려 인권유린과 차별대우, 대량학살을 당해온 쿠르드 민족.. 쿠르드 족과 거주국가간의 다름은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낳았고 아무런 희망 없는 투쟁은 쿠르드 반군인 PKK라는 이름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게릴라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는 부흥과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현재 쿠르드는 부흥과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린 수많은 중보자들과 장, 단기 사역자들, 또 최근 몇 년간의 단기선교와 학생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쿠르드 민족이 주님께 반응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쿠르드 민족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 그리고 환경은 지난 2500년 동안 설세 없이 바뀌었지만,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항상 거기 계셨고, 지금도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모든 어둠을 다 삼켜버린 십자가! 모든 수치와 지주를 끌어버리신 십자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쿠르드를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이란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아프가니스탄을 덮고, 이제는 터키 동부 쿠르드 지역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아끼시어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14)





이 쿠르드 민족, 비록 모두의 관심 밖에서 전쟁의 역사가운데 고통 받았던 상처들이 이들의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쿠르드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부흥의 물결은 더욱 풍성해져 꺼지지 않는 빛으로 생명으로 땅 끝까지 함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 쿠르드 민족을 위해 기도 제목

1. 오랜 시간 이들을 묶고 있는 이슬람의 거짓 영과 전쟁과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생명의 복음이 쿠르드 민족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2. 쿠르드 민족 가운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이 민족의 영적 어머니와 아버지 된 자들을 한국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장, 단기 사역자들과 학생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쿠르드 민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취재 | 이이미 집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넣는 자가 없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막2:22)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새 포도주를 담가서 가족부대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때 모두가 알고 있는 금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로 담근 포도주는 절대로 오래된 가족부대에 담지 않는 것이다. 새로 막 담근 포도주는 발효를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가스가 나오므로 용기에 60~70%정도만 포도를 채운다. 잘 담근 포도주를 가족부대에 담는데 그 동안 사용하였던 현 가족부대가 아니라 새 가족부대에 담아놓는다.

우리 생각엔 오래된 가족이 좋은 것이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 가족은 수분이 빠져 쫄쫄하게 마르고 변질되어 새포도주의 발효력과 팽창력을 견뎌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드럽고 신축성 좋은 새 가족에 포도주를 보관하며 일년 내 맛있게 무르익어 가는 달콤한 향내와 맛을 즐긴다.

딸그락 딸그락~~~

눈뜨기 싫은 한겨울 이른 아침... 딸래미 방에서 조그만 손이 바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휴~ 송구영신예배드린 후라 모처럼 새벽예배가 없어 맘 편히 늘어지게 늦잠 좀 자보려 하는데 저 녀석은 왜 잠도 없는 게야...?!

공~~ 그냥 무시하고 돌아누우려다 궁금함을 못 이기고 일어나 딸래미방을 쓰윽 훑쳐본다. 나의 눈에 비친 딸아이의 모습은!!! 책상서랍 3칸을 몽땅 뒤집어

발디들 틈도 없이 늘어놓고서는 재는 듯이 고개를 갇웃거리며 주섬주섬 다시 물건들을 담아놓는다. “얘! 뭐하니??? 넌 잠도 없냐?! 험~~이게 다 모래!” 눈썹도 제대로 떴지 못한 얼굴로 배시시 웃으며 대답한다. “새해가 됐으니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려구~! 엄마, 나 이제 이것들 필요없는데 한 개씩 소원이랑 서현이 나눠 줘도 될까?!”

그렇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 또 새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새 결심도 갖게 한다. 새해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습관과 출발을 시도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다. 한번 낡아지면 버려야 하는 낡은 헛가죽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더 이상 헛가죽부대가 아닌 새가죽부대가 되어 천국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안에 담아보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흠...그럼 나도 맛있는 식탁을 위해 어디 그릇 정리부터 해볼까?! ㅎㅎ 누구나 정리수납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마르다 집사표 수납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글 | 박정란 집사



마르다 집사표 수납노하우를 공개합니다.



① 반찬통수납: 골칫덩이들이 안전해졌어요~

→ 뚜껑과 몸체를 분리해 각각 바스켓 안에 넣고 용도에 맞게 꺼내 쓰세요



② 씽크대 수납: 보일러밸브가 딱 하나 버터 쓸모가 없던 수전씽크대 아래공간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요~

→ 철재접시꽃이를 이용해 쟁반이나 큰 접시를 보관, d자선반을 이용해 아래 위공간 확보하세요



③ 수저랑 젓가락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웠어요~

→ 천냥백화점에서 파는 수저정리함을 이용해 꺼내기 쉽게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④ 접시들이 함박 미소를 머금고 맛있는 친구들을 반겨요~

→ 접시꽃이와 여러 가지 바스켓, 선반에 매달 수 있는 다용도 그릇보관함을 심분 이용해보세요

지혜로운 정리수납의 달인이 되어 새해에도 맛있고 행복한 식탁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QT로 열리는 삶

[말 씀] 누가복음 5:12-16

12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14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독 상]

주님이 원하신다면으로 시작되는 나병환자의 기도!!
그 기도에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눅5:12-16 말씀으로 Q.T하면서 저의 요구만을 홍보하던 기도를 바꾸어서, 이러 이리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 집을 매매하게 하시고 교회 옆 현대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Q.T를 마쳤습니다.

외출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르릉~~! 부동산 실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집을 보고 가신분이 오늘 저녁에 계약하고 싶어하신다고, 할렐루야!!!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9/3일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삿짐 센터에 계약도 하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아들 동현 하는 말. 엄마 9/3일에 군에 입대하래요!!

뭐!!!! 이게 웬일이니~~~? 이사하는 날이 동현이의 군입대일이란다.... 그때부터 시작된 갈등... 이사날짜를 바꾸어 야하나 ??? 어찌나!!! 혼란스러워 하는 마음으로 Q.T를 하던 중 본문 말씀이 저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 가족관계에 연연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감동을 받고 이 말씀 중심으로 Q.T를 하면서 동현이 입대 때문에 이사 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요일(전도, 기도회), 수요일(제자 대학), 목요일(Q.T나눔방, 전도), 금요일(구역예배), 토요일(주일준비) 월요일이 아니고는 어느 하루도 내 맘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기에 많이 미안했지만, 동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획대로 월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입대 일에 아침도 못 챙겨주고, 열병절에 보내놓고는 저녁나절에야 정신이 들어서 아들 생각에 울컥해지면서, 주님!!! 그래도 제가 동현이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거 맞지요???라고 의를 삼고는 피곤한 하루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가려고 일어나 나가려는데, 이게 웬일이예요!! 어찌나 거세게 장대비가 쏟아지던지요! 그 때 저는 너무나 보잘 것 없

는 저의 믿음을 보았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의에 차있던 저의 자아가 한 순간에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면서 저절로 마음의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사 다음날 내가 미루어 이사하려고 했던 그날에....이렇게 역수같은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렇기에 Q.T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장대비를 피하여 이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올려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한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비교할 수나 있을까요??? 부족한 저에게 Q.T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Q.T 은혜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취재 | 최혜경 집사
글 | 진효채 권사

기쁜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의 찬양

“새벽송의 유래는 기쁜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8~14에는 천사들이 나타나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구주가 나심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다. 새벽송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 밤 중에 천사가 나타나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영광을 선포하던 것에서 기원을 찾는다.

한국 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풍속인 새벽송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으로 전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새벽이면 구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집집마다 전한다는 의미이다. 새벽송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만, 올해는 우리 영흥교회도 그 전통의 문화에 동참했다.

“새벽송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야제”

추운 날씨에도 유/초등부에서 청년부까지 조를 만들어 미리 신청을 받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Happy Merry Christmas”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참여한 아이들과 청년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뭐가 그리 즐거울까?

아이들에게는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일, 늦은 밤에 또래들이 같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놀이고 즐거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세상 아이들과 구별되어 믿는 자녀들간에, 마치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전야제이다. 우리 아이들이 천사가 아니고 무엇이라.

“새벽송은 성도간의 교제와 가정의 축복”

우리는 성도간의 교제를 예배마다 서약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약하기가 쉽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학교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새벽송에 참석했던 학생은 새벽까지 같이 있으며 서로를 알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한다. 교사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해서 과자를 한아름 받고 그 과자를 나누며 나는 시간들은 교제의 기쁨이고 가정의 축복이 된다.

“새벽송은 마음의 담을 낮추고 사랑을 주고 받기”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기에 너무나 인색하고 어색하고 서툴다. 초대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조차 죄송한 일이다. 아파트 문화로 새벽송도 사라져가고 있다. 새벽송은 우리의 마음의 담을 잠시 낮추고 주님이 오심을 같이 축하하는 일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 한 가정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과자 한봉지 한봉지를 한아름 안겨주시는 마음은 역시 사랑이다. 아이들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받고 있는 것이다. 과자를 한아름 안고 교회에 모여, 참새와 같은 수다로 시간가는 줄 모른다. 올해도 하는 거죠? 라고 물으며 눈을 반짝인다. 그 눈은 천사의 눈빛이고 사랑이다.

지난 해는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 진행된 작은 행사가 되었다. 올 해에는 소외된 곳도 몇 곳 방문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벽송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 박중건 집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2)

〈이전 내용 요약〉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첫째,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맞는 직접적인 지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성격적 원리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과감하게 시작해야 하느냐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는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위험이 따랐으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 사업이 자신의 신앙생활, 곧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 후 둘 사이에 뚜렷이 배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그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진취적인 사업가가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업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결정에 관해 그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없다. 성경은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각자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두실 때가 많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돕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한다.

어느 날, 이 사업가는 어느 때처럼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 1장 1-9절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에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전진하라고 촉구하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이 구절은 그의 상황에 적절해 보인다.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리려는 결정에 관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자신이 오늘 이 구절을 읽도록 예비해두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주권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절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날에 그 구절을 읽도록 미리 정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날에, 어떤 구절을 읽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일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는 지침의 부분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100퍼센트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만큼 권위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의 분명한 지침은 오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메시지에 대해 성경과 동일한 정도로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성경을 왜곡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메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의 분명한 지침과 모순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리라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원리와 모순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한 가지 좋은 규범은 이러한 특별한 메시지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다니면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런 후에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맞는 직접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은 지금이나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의 원리들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후재 | 박종진 집사

이지스 페르난도, 기독교 교양
[gogpeople.com]에서 인용

기다림

동경이란 누군가를 에ता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사랑의 절정이고 그리움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조급함입니다. 잘 참지 못하고, 잘 견디지 못합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은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조급해서 만든 작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만든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기다리는 중에 만든 작품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영의 열매입니다. 인류 구원의 길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수천 년을 기다려 이삭의 후예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길이 열립니다. 기다림으로 길을 열립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다. 그렇지만 모세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척자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을 때 새벽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기다림을 가끔 강조하는 까닭은 기다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십시오. 주일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글 | 담임목사 김성택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캠페인

함께 지키는 에티켓

표어: 예배에 또 늦으셨다구요?!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

1

10분전에 오셔서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지하철탑승시간보다 더 정확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착석해 주세요.
은혜는 제일 많이 받고 싶지만 미리부터 앉아 있는 건 싫어!
일단 가방부터 던져~~! 아니아니 아니되요!?

2

3

헌금은 가정에서부터 준비해 주세요.
아차! 헌금봉투 갖고 오는 걸 까먹었다. 전도사님~이~임!
마음과 함께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교회차량 탑승자들은 동승하는 교인이 예배에 늦지 않도록
미리 5분전 대기해 주세요.

어떡하줘~?! 추우니까 조금 더 집에 있다가 나갈래~
요 설것이지만 끝내고 나가야줘~ 아니아니 아니되요!

4

교회 소식

1 패밀리 기도회

- 일 자 : 2013년 2월 27일 (수) ~ 3월 1일 (금)
- 시 각 : 7시 30분
- 장 소 : 본당

2 실버기도학교 개강

- 일 자 : 2013년도 3월 3일 (주일)
- 수업일 :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 장 소 : 유아실
- 내 용 :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등